

포도(거봉,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수출후 경제적 효과

이철휘*, 서정학*, 홍기홍*, 김관후*, 윤홍기*, 장현동*, 박평식*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mail:Lch5127@korea.kr

The Economic Effect of Grape('Shine Muscat', 'Geobong') farmer's Export

Cheol-Hwi Lee*, Jeong-Hak Seo*, Ki-Hung Hong*, Gwan-Hu Kim*, Hong-Ki Yoon*, Hyun-Dong Jang*,
Pyeong-Sik Park*,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약

포도 수출농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천안지역 포도 수출단지 20명을 집중적으로 심층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답변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를 적용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수출경영체의 수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 점수는 평균 4.29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항목별 만족도 순위를 보면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 의사가 있다.」가 4.8, 주변 농가에게 수출을 장려하고 싶다가 4.75 다음으로 중장기적 수출 전망이 밝다가 4.6점으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최고 낮은 만족도를 보인 답변 항목은 거래업체(바이어)와의 유통시스템에 만족한다가 3.6, 농업지원기관의 협조에 만족한다가 3.8이었다. 이 결과를 보면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농업지원기관의 협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면 생산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지원기관은 향후 친밀할수록 수출농가 지원을 지양하고 개별 농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마다 겪고 있는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수출농가들의 수출을 하기 전과 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출후 수출전에 비하여 농가평균 24,186천원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여주었다. 부분예산법에 의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면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비가 농가당 1,870천원 더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규격품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적과작업, 수출금지해충방제를 위한 농약살포 횟수 증가, 수출용 고급 포장재 구입, 수출상품 선별작업 등에 투입된 이력 증가로 고용노동비가 농가당 2,652천원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총 손실적 요소가 농가당 평균 4,522천원으로 집계 되었다. 이익적 요소를 보면 수출로 인한 단가 16% 상승으로 농가당 평균 32,555천원 조수입을 증가시켰다. 여기에서 나온 손실적요소와 이익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효과를 보면 이익적요소(32,555천원)에서 손실적요소(4,522천원)를 제하고 남은 순이익은 농가평균 28,033천원이다. 앞으로 수출로 인한 소득증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 수출용 포도 생산을 위해서는 관행과 다른 농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꾸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31082020)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